

코로나19에 식당 손님 3분의 2 줄었다

외식산업연구원, 전라권 외식업체 누적 고객 감소율 64% 지난해 광주·전남 음식·숙박업 대출금 1조6000억 역대 최고

코로나19 국내 확진 두 달을 맞으면서 지역 식당 이용객이 3분의 2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음식·숙박업 대출금은 1조6000억원 대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한국의식산업연구원은 이달 3-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6주 동안 전체 업소의 누적 고객 감소율이 65.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라권 외식업체

고객 감소율은 64%를 기록했다. 국내 확진 후 고객이 줄었다는 응답률도 96.7%에 달했다.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 뒤 광주·전남 외식업소의 고객 감소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내 확진 뒤 2주간 전라권 일 평균 고객 감소율은 31.2%였지만 33.5%(4주차)→56.9%(5주차)→64%(6주차)로 한 달 새 32.8%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3주차 고객 감소율은 전주에 비해 4.1%포인트 떨어지며 회복세를 보이기 싫더니 광주 첫 확진자가 지난 달 4일 발생하면서 감소폭이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연구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위협의 현실화에 따라 외식 소비심리가 더욱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 식당 고객은 급감하는 가운데 지난해 음식 및 숙박업소가 예금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1조674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 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및 숙박업 대출금은 광주 8429억원·전남 8313억원 등 1조6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4%(860억)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 음식·숙박업 대출금 가운데

9353억원은 인건비·재료비 등 운전자금이었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56%)이라는 뜻이다.

한편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지난해 산업 대출금 잔액은 34조996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45억원 늘었다.

지난해 업종별 대출금 잔액은 서비스업이 18조90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9조6250억원, 농림어업 3조8894억원, 건설업 1조5498억원 등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서비스업 9050억원, 제조업 4222억원, 농림어업 3332억원, 건설업 900억원의 대출금이 증가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대출금은 광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고, 전남은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증업무 금융회사 위탁 현황

재단	현행 위탁은행	위탁업무			
		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약정
광주	광주, 하나, 신한, 기업, 국민	○	○	○	
전남	광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	○		

※광주신보, 농협은행 위탁 논의 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속도 높인다

광주·전남신보재단, 신청·접수 업무 민간은행 위탁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청·접수 업무 민간은행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보증업무 위탁을 광주·하나·신한·기업·국민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들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현장실사 등을 영업점 전 지점에서 수행한다. 광주신보는 농협은행과도 업무 위탁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도 보증업무를 광주·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에 위탁했다.

신보 측은 이번 민간은행 위탁 확대로 길게는 2~3개월까지 늘어던 대출 심사 기간이 3주 기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지역재단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늘릴 방침을 세웠다. 표준 업무 매뉴얼을 보급해 절차도 신속화한다.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6.5%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보증을 공급하는 등 최소요

건만 심사한다.

16개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902회)

등위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9	23	24	36		3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19,317,529	13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2,365,990	67
3	5개 숫자일치					1,479,141	2,372
4	4개 숫자일치					50,000	119,126
5	3개 숫자일치					5,000	1,945,304



집콕족에 인기 '냉동 볶음밥' 롯데마트 광주월드점 직원들이 1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정편식 '냉동 볶음밥'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포스코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31일까지 서류 접수

포스코그룹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하는 그룹사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4개사다.

입사지원서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주일 연장해 3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학점 하한선을 4.5만점 기준 3.0점에서 2.8점으로 낮춰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실제 경험 위주로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

최소 학점 등 지원요건은 그룹사마다 달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적성검사와 면접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입사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현장 설명회 등 오프라인 채용 활동은 전면 취소하는 대신 자체 보유한 SNS 채널을 통해 소통에 나선다.

공식 유튜브채널인 '포스코TV'는 지난 2월 신입사원들의 포항 포스코인재창조원 연수생활을 담은 '포스코 신입사원 포항 브이로그(V-log)'를 공개했고, 이달 중에는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영상도 게재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효성ITX, 콜센터 코로나 확산 차단 나선다

재택근무 가능 컨택센터 솔루션 제공

효성ITX는 재택근무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콜센터 코로나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효성ITX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효성ITX는 설명했다.

대응수칙 배포 및 실행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 상시적 발열체크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조기대응, 센터 내 상담원 밀집도 해소를 위한 물리적 분산배치(콜센터 장소 3원화) 및 상담원 자리 띄우기 등 콜센터 감염예방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콜센터 근무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되는 가운데 효성ITX,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NCP), 삼성전자, LGU+등 4개사가 함께 상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컨택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상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효성ITX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및 스마트 컨택센터 솔루션'을,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NCP)은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삼성전자는 보안플랫폼을 적용한 모바일 기기, LGU+는 통신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콜센터 근무자들의 재택 근무가 가능해져 콜센터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효성ITX가 운영하는 주요 민간 기업 콜센터들도 조기에 스마트 컨택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성금 1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공후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 13일 전남도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내 저가격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진 등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